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황성철 목사

# 부모님께 효도는 어디까지인가? 룻기 1:15-18

1. 자녀로서, 만일 부모님께서 현재 생존해 계시다면 자신의 효도 점수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한국의 2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효도 점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6점이었다고 합니다.
  
2. 룻의 이야기에서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부담이 되거나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또한 나누어 주십시오.
  
3. 부모님을 살피드리고 있는 자녀로서 룻의 이야기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면 어떤 부분을 더 강조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4.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만약에 거의 듣지 못하고 자랐다면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편인지요?

적용하기



# How Far is Filial Piety to Parents

Ruth 1:15–18

- 1.** If your parents are still living, as a child, what would your filial piety score be? For reference, a survey of 500 Korean men and women in their 20's on the filial piety resulted in a score of 60.6 out of 100.
- 2.** If you were challenged by Ruth's story, share specific aspects of your challenge. But if you felt burdened or rejected by Ruth's story, share why you felt that way.
- 3.** As a child caring for parents, if you were to share Ruth's story with your own children, what part of the story would you emphasize? Share your reason.
- 4.** Growing up, how often did you hear your parents say "I love you" "Thank you" or "I'm sorry"? If you grew up not hearing these things, what do you think was the problem? Presently, do you often say these things to your own children?

Apply to Life

